

碩士學位論文

〈초공본풀이〉 연구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國語敎育學科 國語敎育專攻

金 佑 柱

2004年 2月

〈초공본풀이〉 연구

指導教授 崔 雲 植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國語敎育學科 國語敎育專攻

金 佑 柱

2004年 2月

金佑柱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2004年 2月

〈차 례〉

차례	i
논문요약	iii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성과 검토	3
3. 연구 방법 및 자료	5
II. 채록본의 비교	7
1. 서사 전개 과정의 비교	7
2. 초공에 해당하는 인물	20
III. 의미 구조	30
1. 만남—이별 구조	30
2. 시련—극복 구조	33
IV. 기호학적 분석	36
1. 생물·무생물 차원	37
2. 가족·혈연적 차원	41
3. 정치·사회적 차원	43
V. 결론	46
참고 문헌	49
ABSTRACT	51

〈그림 차례〉

<그림 1> 아기씨가 남편을 찾아가기까지 등장인물	39
<그림 2> 삼형제의 과거 시험과 관련된 등장인물	40
<그림 3> 삼형제의 과거 낙방 이후 신직 획득까지의 등장인물	40
<그림 4> 작품 전체에서 인물의 생물·무생물 층위에 따른 분포	41
<그림 5> 작품 전체에서 인물의 가족·혈연적 층위에 따른 분포	42
<그림 6> 작품 전체에서 중심인물의 사회적 층위에 따른 분포	43

〈표 차례〉

<표 1> 3대에 걸쳐 일어나는 만남과 이별의 내용	32
<표 2> 3대에 걸쳐 일어나는 시련과 극복의 내용	34
<표 3> 작품에 등장하는 원조자	38
<표 4> 가족·혈연적 차원에 따른 분류	42

論 文 要 約

〈초공본풀이〉 연구

金 佑 柱

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國語敎育專攻

(指導敎授 崔 雲 植)

〈초공본풀이〉는 제주도에서 불려지는 본풀이의 하나로 무조신(巫祖神)의 내력을 풀이하고 있다. 본풀이의 기능은 굿을 할 때 청신(請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과정을 거치는데, 본풀이는 이름을 불러 신을 모셔 오는 청신 단계이며, 동시에 전능한 신의 내력을 말하면서 신을 찬양하기 때문에 신을 기쁘게 하는 오신 단계에 해당한다. 〈초공본풀이〉는 무속(巫俗)의 기원에 관한 사실을 알려 주며 무속에 대한 당시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무속인을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로 여기는 것처럼 당시에도 심방이 되기 위해서는 전생의 팔자를 그르쳐야 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현재까지 7편의 채록본이 채록되어 전한다. 이 중에서 〈풍속무음〉에 실린 현용준의 필사본을 제외한 여섯 편을 대상으로 〈초공본풀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공본풀이〉에서 미해결의 과제 중 하나는 ‘초공(初公)’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였다. ○○본풀이라고 하면 ○○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것인데 ‘초공(初公)’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제껏 밝혀진 바가 없었다. 작품 내에서 ‘초공’이라는 신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공본풀이〉 각 편의 서사 전개 과정을 비교하여 누가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초공본풀이〉의 구성을 살필 수가 있었다. 전반부는 아기씨에 관한 이야기이며 후반부는 삼형제에 관한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본풀이

의 성격상 주인공은 신직(神職)의 획득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서사 전개 과정에서의 역할과 행동을 살펴 삼형제가 ‘초공’에 해당함을 밝혔다.

〈초공본풀이〉의 구조는 3대에 걸쳐 대물림을 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로 동일한 구조에 의해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불 때 만남과 이별, 시련과 극복이라는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초공본풀이〉의 내용이 형성되어 있다. 제3대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적절히 변형되어 나타남으로서 외조부나 어머니와 달리 능동적인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한다. 시련의 극복 과정에서 이전의 가치 체계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삼형제가 주인공이라는 또다른 증거를 보여준다.

신화는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사고를 강하게 표출한다. 무속신화인 〈초공본풀이〉에도 사회적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역할과 행동을 다양한 의미 층위에서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생물·무생물 차원과 가족·혈연적 차원,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본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열등한 위치를 정치적 차원과 생물·무생물적 차원에서 극복하고 있다. 여기서 〈초공본풀이〉가 형성된 사회에서는 신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차원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삼형제가 양반에 대해 복수를 하려는 이유를 설명한다. 삼형제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을 뿐 사회적 위치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호학적 분석을 통하여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인물은 아기씨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초공본풀이〉가 형성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의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는 그 사회에서 피지배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아기씨가 〈초공본풀이〉에서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주 서술되는 이유이다.

이 연구는 먼저 서사무가 〈초공본풀이〉 각 편을 정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여러 편의 채록본을 통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초공본풀이〉의

보다 명확한 모습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장면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야기의 기본적인 서사 전개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게 하는 의미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편을 두루 고찰함으로써 <초공본풀이>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 끝으로 <초공본풀이>에서 아기씨에 대한 서술이 많은 것은 열등한 존재인 아기씨를 통해 사회의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것임을 밝힌 것도 연구의 성과이다.

※ 본 논문은 200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I. 서론

무속 연구자들은 〈초공본풀이〉를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서사무가(敍事巫歌) 〈당금애기〉의 제주도 지역형으로 분류한다. 〈초공본풀이〉에는 〈당금애기〉와 같은 중과의 결연담(結緣譚)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공본풀이〉의 기본 내용은 〈당금애기〉와 비슷하면서도 이야기 전개에서는 다른 지역의 〈당금애기〉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초공본풀이〉는 다른 지역의 〈당금애기〉보다 이야기 전개가 매우 길게 이어지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에서 아기씨보다는 삼형제에게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공본풀이〉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적었고 연구의 폭도 넓지 않았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초공본풀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뒤에 연구의 방법 및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풀이’는 제주도의 곳에서 구연(口演)되는 신의 내력담(來歷譚)을 이르는 말이다. 본풀이는 ‘본을 풀다’의 명사형으로서, 그 자체의 개념 속에 이야기를 구연 혹은 가창(歌唱)하는 행위가 담겨 있다. ‘풀다’는 ‘이야기를 풀다’에서처럼 전개 혹은 진행의 의미를 함축한다.¹⁾ 이는 서사가 갖는 일반적인 성격에 해당한다. ‘본풀이’는 서사가 갖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반적인 서사와는 다른 회귀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어떤 것의 내력을 풀다’는 것에서 ‘내력’은 회귀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곳에서 본풀이가 구연되는 이유를 우리는 제주도의 한 속담에서 찾

1)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서울:민음사, 1999), 133쪽

아볼 수 있다. 제주도에는 “귀신은 본을 풀면 신나락 만나락 하고, 생인은 본을 풀면 백년 원수가 된다”는 속담이 전해 온다. 인간은 결점이 많기 때문에 그 근본부터 모두 해설을 하면 허물이 많이 나와서 결국 원수가 되지만, 신은 전능하고 홀륭하니까 처음부터 해설을 하면 찬양만 듣는 결과가 되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다.²⁾ 굿을 할 때는 청신(淸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과정을 거치는데, 본풀이는 청신 단계이며 동시에 오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큰곳에서는 이러한 본풀이 가운데 무조신(巫祖神)의 내력을 서술하는 〈초공본풀이〉가 가창된다. 무속 연구자들은 〈초공본풀이〉를 단순히 〈당금애기〉의 변이형으로만 취급하였기 때문에 〈초공본풀이〉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공본풀이〉를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은 본풀이의 대상이 되는 ‘초공(初公)’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밝히는 것이 이다. 이를 첫 번째 목적으로 삼은 이유는 작품에서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서사 전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작품을 분석할 때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적은 무속신화인 〈초공본풀이〉가 신화의 일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가 작품 내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작품 내에 반영된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미 층위에서의 인물 특성을 구분하여 밝혀내겠다.

〈초공본풀이〉에서 ‘초공’이 누구인가를 밝히면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의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제주도 큰곳 내에서의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와의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다른 무가에 비해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초공본풀이〉에 반영된 사회의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통하여 제주도 지역의 무가가 갖는 전반적인 특징을 살피는 데에도

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서울:역락, 2001), 43쪽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성과 검토

지금까지 〈초공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연구 주제도 제한적이었다. 〈초공본풀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자인 최시한은 텍스트의 통합적·계열적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무조(巫祖)가 가지는 능력과 권위, 초공에 해당하는 인물, 연행되는 목적, 무속적 세계관 등을 살펴보았다.³⁾ 그의 연구는 〈초공본풀이〉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신월균도 역시 구조 분석을 통하여 이별을 모티프로 한 제2대의 삶과, 떠남을 중심으로 하여 전반기와 후반기가 대칭되는 제3대의 삶을 분석하였다.⁴⁾ 신월균의 연구는 제2대인 아기씨가 이별을 모티프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아기씨와 삼형제의 이별에서 이별을 만든 주체는 삼형제라는 사실을 볼 때 아기씨가 이별을 모티프로 이야기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설성경은 〈박봉춘 본〉과 〈안사인 본〉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서사구조의 분석을 통해 〈초공본풀이〉를 민담(民譚)의 서사구조 위에 신화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⁵⁾ 〈박봉춘 본〉의 경우 민담의 요소가 나타나긴 하지만 민담의 서사구조 위에 신화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화적 구조 위에 민담의 요소가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밖에 〈초공본풀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강금숙의 ‘초공본풀이와 불의 딸의 서사구조 연구’와 이수자의 ‘무신도의 신적 형성과 형성 배경’, 윤교임의 ‘여성영웅신화 연구’ 등을 들 수 있겠다.⁶⁾

3)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11(서울:배달말학회, 1986)

4)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 고찰,” 국어국문학100(서울:국어국문학회, 1988)

5)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제주도 언어민속논총, (제주:제주문화, 1992)

6) 강금숙, “초공본풀이와 불의 딸의 서사구조 연구,” 이화어문논집12(서울:이화여대 한국

강금숙의 연구는 〈초공본풀이〉의 삼대의 구조가 현대 소설인 《불의 딸》의 서사구조와 일치함에 유의하여 가계도를 비교하여 초공본풀이의 가계 구조가 현대 소설에 수용된 양상을 밝혀냈다. 그의 연구 업적은 삼대의 가계구조가 신화에서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한국 서사문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전통임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들 수 있다. 이수자의 연구는 무신도에 그려진 세 명의 스님 그림을 〈초공본풀이〉의 삼형제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의 연구는 〈초공본풀이〉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윤교임은 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를 문화기호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유표성(有表性)을 띤 여성 영웅들이 그 문화의 위계를 위반한 별로 집에서 추방당하여 시련을 겪다가 마침내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여 그 유표성을 벗는 기호 체계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윤교임은 유정승 따님을 아기씨의 환생으로 보았는데 이는 〈안사인 본〉의 끝부분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또한 아기씨는 천상에 위치하는 신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표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그의 주장대로 유정승 따님이 아기씨의 환생이라면 아기씨는 신에도 도달하지 못한 심방에 불과하다. 이는 유표성을 탈피하는 기호 체계를 가진다는 그의 주장과 상반된다.

기존의 연구는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서사구조의 분석의 토대 위에서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사구조 분석도 채록본들을 상세히 비교하지 않아서 미흡한 점이 많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초공본풀이〉 각 편의 내용을 상세하게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초공본풀이〉에서 ‘초공(初公)’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가 합당한지를 고찰해 보겠다.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서사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행동에 따라 인물을 여러 의미 층위에서 분석해 보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러 의미 층위에서 나

어문논집, 1992)

이수자, “무신도 삼불제석의 신적 성격과 형성 배경 — 무조신화 초공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4(서울:한국역사민속학회, 1994)

윤교임, “여성영웅신화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5

타나는 인물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드러난 인물의 특성을 통해 작품을 형성시킨 사회의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밝혀내겠다. 이러한 과정은 〈초공본풀이〉에서 ‘초공’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및 자료

서사무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현장론적 연구와 텍스트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가의 특성상 연행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임에 틀림없지만 현장에 대한 많은 경험과 민속학자의 탁월한 안목을 갖추지 않았다면 현장론적 연구는 쉽지 않다. 현장론적 연구는 성격상 민속학의 성격이 강하여 국문학의 성격과 거리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범위를 텍스트에 한정하기로 한다.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는 구조주의적 방법과 정신분석학적 방법, 기호학적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연구는 구조주의적 방법 위주로 이루어졌기에 하나의 보편적인 도식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이는 심층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사체의 플롯이나 줄거리는 보다 추상적 관념 체계나 가치 체계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표층구조를 바탕으로 심층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에 적절한 연구 방법인 기호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구조를 통한 의미 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는 이제까지 채록된 〈초공본풀이〉 총 7편 중 구할 수 없었던 필사본 1편을 제외한 〈고대중 본〉, 〈김명윤 본〉, 〈김병효 본〉, 〈박봉춘 본〉, 〈안사인 본〉, 〈이중춘 본〉으로 총 6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⁷⁾ 연구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7) 지금까지 채록된 〈초공본풀이〉는 총 7편으로 이 중 현용준, 《풍속무음》(제주:제주대학교, 1994)에 실린 필사본은 연구에서 제외한다. 기본 자료로 쓰일 〈초공본풀이〉 채록

먼저 제Ⅱ장에서는 〈초공본풀이〉 각 편을 비교하여 공통된 서사구조를 파악 하도록 한다. 본풀이의 대상이 되는 ‘초공(初公)’이 누구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를 각 편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초공본풀이〉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의미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초공본풀이〉 삼대에 걸쳐 일어나는 이야기로 반복되는 의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여 〈초공본풀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의미를 해석하여 보겠다.

끝으로 제Ⅳ장에서는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기호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미 층위로 분류할 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을 형성하게 한 사회의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의 반영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본은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서울:역락, 2001)에 수록된 〈고대중 본〉과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서울: 민속원, 1991)에 수록된 〈김명윤 본〉과 〈김병효 본〉, 아까마쯔 지쥬오·아끼바 다까시,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서울: 동문선, 1991)에 수록된 〈박봉춘 본〉과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서울:신구문화사, 1974)에 수록된 〈안사인 본〉의 6편을 대상으로 한다.

II. 채록본의 비교

지금까지 조사된 <초공본풀이> 채록본은 모두 7편이며, 이 중 6편을 <초공본풀이>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초공본풀이>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채록본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구조의 전개와 각 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본래 모습에 보다 가까운 <초공본풀이>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사 전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본풀이의 대상이 되는 ‘초공(初公)’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초공본풀이> 채록본을 비교하여 서사구조를 파악하고 ‘초공’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밝힐 것이다.

1. 서사 전개 과정의 비교

<초공본풀이>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자지명왕 아기씨의 탄생, 아기씨와 중과의 결연(結緣), 아기씨가 중을 찾아감, 부부임을 확인하고 삼형제를 출산하는 자지명왕 아기씨 중심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삼형제가 어릴 적부터 비범한 능력을 지님, 삼형제가 장성하여 과거를 보러 감, 삼형제가 과거 급제를 하지만 중의 자식이라 급제가 취소됨, 삼형제의 어머니가 옥에 갇힘, 삼형제가 외조부와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함, 삼형제가 굶을 벌여서 어머니를 구출함, 삼형제가 신직(神職)을 부여 받음, 삼천선비에 대한 복수로 삼형제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유정승 따님 아기가 심방이 되는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공본풀이> 각 편에 공통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임정국 부부에게 대사가 찾아와 원불수륙재 (願佛水陸齋)를 드리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한다.
- 2) 임정국 부부는 불당에서 원불수륙재를 드리고 딸을 낳는다.
- 3) 임정국 부부는 딸이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벼슬 살러 가게 되면서 딸을 여러 겹으로 잠긴 집 속에 두고 여종에게 돌보도록 한다.
- 4) 황금산 도단땅에서 공부하던 삼천 선비들이 주자 대사에게 자지명왕 아기씨 집에서 시주를 받아오면 삼천 냥을 주겠다고 내기를 한다.
- 5) 주자 대사가 아기씨의 명이 짧아지므로 명을 잇기 위해서 시주를 받으러 왔으며 아기씨에게 직접 시주하라고 한다.
- 6) 주자 대사는 아기씨가 갇힌 몸이라 시주하러 나갈 수 없다고 하자 신통력으로 갇힌 문을 연다.
- 7) 주자 대사는 시주를 받는 동안 일부러 쌀을 땅에 흘리고, 아기씨가 쌀을 줍는 동안 그녀의 상가마를 세 번 쓰다듬는다.
- 8) 아기씨가 주자 대사의 행동에 깜짝 놀라 물러서며 대사에게서 증표로 삼을 물건을 잡아둔다.
- 9) 주자 대사가 떠난 뒤에 잉태한 아기씨는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께 잉태한 사실이 발각되어 여종과 함께 집에서 추방당한다.
- 10) 아기씨는 주자 대사를 만나 부부 확인 시험을 거쳐서 불도땅에 내려가 살며 삼형제를 낳는다.
- 11) 아버지 없이 자란 삼형제는 서당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틈틈이 바닥에 재를 모아놓고 글을 연습한다.
- 12) 삼형제는 열다섯 살이 되자 삼천 선비와 함께 과거길을 나서는데, 선비들이 삼형제를 시기하여 과거를 못보도록 계락을 꾸미지만, 삼형제는 삼천 선비들의 계락을 원조자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과거에 합격한다.

- 13) 삼천 선비들이 삼형제가 중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과거 급제에 항의하고 삼형제는 이로 인해 낙방한다.
- 14) 상시관(上試官)이 연주문(延秋門)을 맞추는 자에게 과거를 준다 하니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데 삼형제가 연주문을 맞춰 쓰러뜨리고 다시 과거에 합격한다.
- 15) 삼천 선비는 세 아들을 과거에 낙방시키기 위해 중문서를 돌려 주겠다고 여종을 피어 물명주 전대(戰帶)를 자지명왕 아기씨의 목에 걸어 궁에 가둔다.
- 16) 삼형제가 어머니의 죽음을 여종에게 듣고서 과거를 팽개치고 집에 오니 헛봉분만 있어서 어머니를 찾기 위하여 외할아버지를 찾아가니 아버지의 소재를 알려준다.
- 17) 삼형제를 만난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으려면 전생팔자를 그려쳐야 한다고 하면서 무악기(巫樂器)와 무점구(巫占具)를 만들어 주고,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 18) 세 아들이 북과 징을 가지고 삼천천제석궁(三天天帝釋宮)에 가서 열나흘을 울리니 궁에서 어머니를 내놓는다.
- 19) 아들들은 어머니를 위하여 큰 길가에 금법당(神法堂)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무구(巫具) 전체와 삼만 제기(祭器)를 보관해 놓고 어머니에게 법당을 지키게 한다.
- 20) 상잔(床蠶)과 천문(天門), 요령(搖鈴), 삼명두를 만들어 연당에 두고, 양반의 원수를 갚고자 신칼을 만들어 삼시왕(三十王)으로 들어선다.
- 21) 유정승의 딸은 여섯 살 때 중으로부터 엽전을 받는다. 그러나 장난하고 가지고 놀다가 말광돌(下馬石) 아래 놓아 두었는데 일곱 살 되던 해부터 눈이 어두워지며 생사의 고통을 겪는다. 17, 27, 37, 47, 57, 67, 77살 때마다

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77살에 처음으로 큰 곳을 행한다.

설화는 공통된 줄거리를 가지면서도 입으로 전해진다는 속성 때문에 구연자에 따라 장면에서의 서술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각 편에 따라 구체적인 장면의 서술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공통된 줄거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의 경우는 모든 채록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김명윤 본>은 이 장면 앞에 아기씨의 부모가 15세에 명이 짧아진다고 하여 같은 절에 보내졌고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고대중 본>과 <안사인 본>, <이중춘 본>은 자식 없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세 편에는 공통적으로 걸인의 웃음소리에 걸인의 초막을 몰래 살피다가 아이의 재롱에 기뻐하는 걸인 부부를 보고 부러워한다. <고대중 본>과 <이중춘 본>은 임정국 대감의 자식에 낯기를 고대하는 부분이 더욱 길게 나타난다. <고대중 본>의 경우는 임정국 대감이 집을 나서서 온갖 사물이 아버님, 어머니님 하고 부르는 것처럼 느끼며, <이중춘 본>의 경우는 삼천 선비들과 놀음을 하고 집에 가려는 임정국 대감에게 술취한 선비가 애기도 없는데 돈을 따서 어디다 쓰느냐고 술주정을 한다.

원불수륙재를 드리고 자식을 얻는 것 또한 공통되는 내용이다. <김명윤 본>의 경우는 대사가 찾아오지 않고 부부가 의논하여 수륙불공을 드린다. <김병효 본>은 동개남이 옹중절 대사가 찾아와서 원불수륙재를 드리라고 일러 준다. 나머지 다른 본에서는 황금산 도단땅에서 소사중 또는 주자 대사가 찾아와서 원불수륙재를 드리라고 일러 준다.

황금산은 무속 집단이 신성하게 생각했던 신성공간이며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신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은 터키어, 몽고어, 만주어, 일본어 등과 함께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는데, 알타이라는 말은 몽고어로 ‘금(金)’을 뜻한다고 한다. 알타이계의 타타르족의 무당은 그들의 최고신이 천심(天心)에 닿아 있는 황금의 산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초공본풀이>는 이와 동질적인 사고를 보인

다고 볼 수 있다.⁸⁾ 알타이산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황금산이 주는 의미는 환상적이며 신비적인 신화 창조의 공간을 나타내기에 적절했을 것이다.

2)의 경우 원불수륙재를 드리고 딸을 낳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명윤 본〉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고대중 본〉, 〈안사인 본〉, 〈이중춘 본〉의 경우 제물이 백 근에 못차 여자 아이를 접지 받게 된다. 〈김병효 본〉과 〈박봉춘 본〉의 경우 꿈에 청감주와 호박 안주를 먹는 꿈(여자 아이를 낳을 꿈)을 꾸고 여자 아이를 낳게 된다.

3)의 경우는 모든 채록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으로 벼슬 살러 가는 부부가 아기씨를 여러 겹으로 잠긴 집 속에 가둬 두고 여종에게 지키라고 한다. 여종에게 아기씨를 잘 키우면 노비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한다.

4)에서는 각 편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김명윤 본〉의 경우는 황할림의 아들이 내기에 져서 자지명왕 아기씨의 배에 삼형제를 두고 와서 절간을 물려 받기로 한다. 〈김병효 본〉의 경우도 세 명의 중이 앉아 놀면서 아기씨를 상대하는 자에게 절간을 물려 주겠다고 한다. 〈박봉춘 본〉의 경우에는 임정국이 자신의 딸을 선비들에게 자랑한 뒤 아기씨를 보고 오는 것에 내기를 건다.

5)는 모든 채록본에 공통되는 내용이다. 〈김명윤 본〉과 〈김병효 본〉의 경우 주자 대사가 신말소리⁹⁾를 내서 아기씨가 내다보게 한다(〈이중춘 본〉의 경우 원양새 소리). 주자 대사가 여종이 시주를 하려 하자 아기씨 명을 잇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시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6)은 모든 채록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주자 대사는 아기씨가 갇힌 몸이라 나갈 수 없다고 하자神通력으로 갇힌 문을 연다.

7)의 경우 〈고대중 본〉은 시주를 마치고 돌아서는 아기씨의 상가마를 만진다. 다른 채록본에서는 주자 대사가 일부러 쌀을 흘리고 아기씨가 쌀을 줍는 동안 상가마를 세 번 쓰다듬는다.

8) 이수자, 앞의 글, 123~124쪽

9) 신이 타고 다니는 신마(神馬)의 목에 단 방울소리.

8)의 경우는 각 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대중 본> 과 <박봉춘 본> 의 경우 주자 대사의 행동에 어쩔 줄 몰라하는 아기씨 대신 여종이 나가 중을 욕하며 내쫓거나 뺨을 때린다. <안사인 본> 과 <이중춘 본> 의 경우 아기씨가 욕을 하며 중을 내쫓는다. <김명윤 본> 과 <박봉춘 본> 의 경우 아기씨가 중의 행동에 깜짝 놀라며 중에게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챙기도록 여종에게 시킨다. 다른 채록본의 경우에도 중이 수모를 당한 후에 백 일이 지나기 전에 자신을 찾으리라는 말을 듣고 아기씨가 여종을 시켜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을 챙긴다.

9)는 모든 채록본에 공통된 내용이다. 중이 떠나고 임신한 아기씨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새콤한 열매만 찾는다. 벼슬 살던 부모님이 돌아오자 여종이 재치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어머니에게 잉태 사실이 발각된다. 딸을 죽이려 하지만 여종과 딸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서로 죽여 달라하고 삼형제를 임신한 몸이라 다섯 목숨을 죽일 수 없어 집에서 여종과 함께 내쫓는다.

10)의 경우 <초공본풀이> 에서 아기씨가 주자 대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은 길게 서술되며 채록본마다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 적으므로 각 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대중 본> 의 경우 검은 암소에 행장거리를 짊어지고 집을 나와서 다리를 건너간다. 푸른모래사장, 검은모래사장을 거쳐서 청산, 흑산, 백산을 거치고 애산에서 아랫불이 오름 위로 붙어 올라감을 본다. 거신물, 거신다리를 지낸다. 푸른바다는 금봉채 다리를 놓아서 검은바다는 연봉채 다리를 놓아서 건너지만 낙수 바다에 이르러 건너갈 수 없어 하늘을 보고 통곡한다. 이때, 흰거북과 검은거북이 나타나 둘을 건네다 준다. 검은 암소는 어느 순간 사라져 황금산 차나락 밭에서 나락을 먹고 있다. 78개 갈림길에 이르러 너사무너도령 삼형제에게 길을 묻는다.¹⁰⁾ 알려 준 길을 따라가서 열두 대문에 이르러 치마 한 폭씩 인정을 걸

10) 너사무너도령은 아기씨가 낳은 삼형제와 의형제를 맺는다는 점에서 <고대중 본> 과 <박봉춘 본> 의 경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들어가니 황금산 절간에 이른다.

〈김명윤 본〉에서는 집에서 쫓겨난 아기씨가 갈 곳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길을 가다가 앞에 금하늘이 가득하여 앉아서 잠을 잔다. 꿈에 백발노인이 파란 부채를 부쳐라고 말하여 부채질을 하니 철죽대에 선이 나서 따라가니 백산에 이른다. 청산에 막혀 멈추니 산신대왕이 나타나 부채를 부쳐라고 한다. 부채를 부치 철죽대에서 선이 나와서 그 구멍을 찾아 청산을 넘고 거신산에 흐르니 아랫물이 위로 흐른다. 거신산을 넘으니 푸른바다와 검은바다가 앞을 막아서 물가에 앉아서 울음을 터뜨린다. 건너편에서 표도선¹¹⁾이 도착하여 건네달라고 하니 연다리를 놓아야 건널 수 있다고 말해 준다. 명주 한 필로 연다리를 놓아 건너 백모래밭 큰마을가로 가니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 황주자가 보낸 소도령의 길 안내를 받으며 12대문에 이르러 치마 한 폭씩을 인정을 걸며 지나서 황금산 도단땅에 이른다.¹²⁾

〈김병효 본〉에서는 어릴 적에 입던 옷들을 챙겨 검은 암소에 신고 집에서 나오며 울면서 청용산, 백용산, 흑용산, 거신산, 아용산을 넘어간다. 가다가 건지산에 이르러 더 갈 수 없어 앉아서 졸고 있으니 백발산신이 나와 금봉채로 산을 세 번 후려치니 산이 쪼개져 길이 나온다. 조심다리를 건너 백모래 시냇물에 이르러 금바둑돌을 놓고 넘어가고 왕대울산에 이르러 앉아서 우니까 소사중이 길마중을 나와 있다. 황금산에 들어가니 열두 대문에 치마를 한 폭씩 인정을 걸고 지나간다.

〈박봉춘 본〉의 경우에는 말에 행장을 신고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자 여종이 황금산 대사를 찾아가자고 말한다. 금봉채 선을 따라 푸른 바다에 당도하여 건널 수 없어 울고 있으니 동해용궁의 목이(木伊)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와 건네 준다. 백모래거리에 이르니 바둑이 솟아나서 바둑다리를 건너가고 서천강

11) 용왕국의 연락선.

12) 〈김명윤 본〉에서는 아기씨의 남편을 황할림의 아들로 칭하고 있기에 황주자이다.

에 이르러 넘어갈 길이 없어 울고 있으니 연이 와서 연다리를 넘고 간다. 거지산은 조신다리로 넘어가고, 거신물에 이르니 백발 노인이 물 속에서 나타나 흰개를 건네 주며 꼬리를 잡고 건너라고 일러 준다. 흰개의 꼬리를 잡고 물 속에 뛰어드니 물 속에 큰 길이 생겨 건너간다. 가다보니 78개 갈림길을 만나 금부채 선을 잃고 울면서 탄복하자 주자 대사가 너도령에게 길인도를 하라고 명령한다. 너도령의 길 안내를 받으며 열두 대문에 인정을 걸고 주자 대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안사인 본〉의 경우에는 의복들을 신고 집을 나가는데 아버지가 금부채를 내어주며 앞이 막힐 때 금부채로 다리를 놓아 건너라고 이른다. 검은 암소에 짐을 싣고 남이산, 북해산을 넘고 칼쓴다리, 애손다리, 올은다리를 건너며 여중에게 그 연유를 묻는다.¹³⁾ 올은다리를 건너며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을 본다. 건지오름을 지나 조심다리를 건너 푸른바다, 검은바다를 금부채 다리를 놓고 지나가니 수삼천리(數三千里) 길에 이르러 다리를 놓을 수 없어 운다. 울다가 잠이 드니 전생에 키우던 강아지가 나타나 죽어서 용왕국 거북 사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거북의 등에 올라 길을 건너니 귀 없는 송낙과 장삼이 걸려 있는 절간이 보인다.

〈이중춘 본〉의 경우에는 의복을 말에 싣고 집을 나서는 아기씨에게 아버지가 금부채를 내어주며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며 가다가 급한 일이 있거든 금부채 다리를 놓아 건너라고 이른다.¹⁴⁾ 막막한 심정으로 황금산에 올라 마른 역새에 붙이 붙고, 구렁에 있는 물이 동산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본다.¹⁵⁾ 거

13) 최시한(앞의 글, 199쪽)은 아기씨가 여러 개의 다리를 만나고 넘어가는 것은 아기씨의 거둬진 다리넘기는 그만큼 심한 수난을 당했다는 것과 함께 거기서 여러 무속적 의식 또는 행위가 비롯되었음을 말해 준다고 하였다.

14) 〈이중춘 본〉의 경우 특이하게 아버지가 가부장적 권위가 축소되어 나타난다. 다른 본의 경우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일러 딸을 죽이려 하다가 집에서 내쫓지만 〈이중춘 본〉의 경우 딸에 대한 부정이 모정보다 각별함을 보여 준다.

15) 주자 대사가 기거하는 땅만 황금산이라고 지칭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기씨의 부모가 거쳐하는 땅 역시 신령스러운 곳임을, 아기씨의 부모 역시 신령스러운 존재임을

신물, 거신다리, 청일산과 푸른바다, 검은바다, 외친이 사는 땅을 넘어 백일산, 백수바다를 넘고 건지산에 앉아 머리를 여섯 갈래로 엮어낸다. 수삼천리 낙수바다에 이르러 건너지 못하여 울면서 잠이 든다. 꿈에 거북사자가 자신이 넘겨 주겠다고 하여 깨어 보니 거북이 앞에 있다. 낙수바다를 건너 여종의 입을 단속시키고 철죽대 금을 보고 불뎛물을 보고 열두 대문에 인정을 걸고 지나가니 대문 앞 높은 나무에 한 귀 없는 장삼과 금봉채가 있는 곳이 보인다.

부부 확인 시험은 각 편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찻쌀에 기름을 발라서 싸래기 없이 그것은 손톱으로 까도록 하는 시험을 받는다.¹⁶⁾ 아기씨가 시험에 어려움을 겪자 이름모를 새들이 모여들어 껍질을 벗긴다. 부부임을 확인한 주자 대사는 중은 부부 살림을 차리지 않으니 다른 곳에 가서 살라고 한다. 〈안사인 본〉과 〈이중춘 본〉에서는 불도(佛道)땅에 들어가 살라고 한다. 〈고대중 본〉에는 해복당(解腹堂)에 내려 살라고 하고, 〈박봉춘 본〉의 경우 외총당을 지어 살게 한다. 〈김명운 본〉과 〈김병호 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살게 한다. 각 편 모두에서 아기씨는 주자 대사와 다른 곳에 떨어져 살면서 삼형제를 출산한다.

11)은 모든 채록본에 공통되는 내용이다. 불도땅에서 태어난 삼형제는 글재주가 뛰어나다. 〈고대중 본〉과 〈안사인 본〉, 〈이중춘 본〉에는 재를 모아 놓고 그 위에 글자 연습을 하여 삼형제를 갯부기 삼형제라 불렀다. 〈안사인 본〉에는 삼형제가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12)는 각 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삼천 선비는 삼형제가 가면 자신들이 과거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삼형제를 떼어 두고 가려 하지만 아무리 따돌려도 삼형제는 악착같이 쫓아온다. 삼천 선비는 궁리를 하여 배나무 과수원에 가서 삼형제에게 배를 따오게 한다. 삼형제에게 배를 따오게 나무 위에 올린 뒤 삼천 선비는 삼형제를 내버리고 과거길을 떠난다. 〈이중춘 본〉에

알 수 있다.

16) 각 편에 따라 찻쌀 또는 기장쌀을 한 동이, 두 동이 또는 세 동이를 싸래기 없이 까는 것이 부부 확인 시험으로 나타난다.

서는 삼천 선비들이 같이 길을 가다가 스님들이 지나치며 삼천 선비는 낙방 운이고 삼형제는 과거할 운이라고 하자 삼형제를 떼어 놓을 궁리를 한다.

배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게 된 삼형제는 배나무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삼형제는 원조자의 도움으로 배나무에서 무사히 내려오게 된다. 각 편에 따라 이 부분은 다르게 나타난다. <고대중 본>의 경우 감나무와 배나무에 올라가 삼형제가 울며 밤을 새니 감나무 감좌수 꿈에 청룡과 황룡이 얽힌 꿈을 꾸고 나가 본다. 삼형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내려 준 뒤 조반을 해 먹고 과거하여 돌아올 적에 문전고축(門前告祝)이나 해달라고 한다. <김명윤 본>의 경우도 배나무 주인이 청룡과 백룡이 뒤엉킨 꿈을 꾸고 삼형제를 만나게 된다. 배나무 임자가 삼형제를 구해주고 나니 그들이 자신의 외손자들임을 알게 된다. <김병효 본>의 경우 밤중에 개가 짖는 소리에 사람이 나와 삼형제를 만나 그들이 자신의 외손주임을 알고 내일 과거에 선비들이 삼형제를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니 멀리서 글을 써서 던지라고 일러 준다. <박봉춘 본>의 경우 하늘 옥황의 상시관이 꿈 속에서 청룡, 백룡, 황룡이 엉키어 보이는 꿈을 꾸고 수별감을 보내어 삼형제를 구해 준다. <안사인 본>의 경우 배좌수가 청룡, 황룡이 엉킨 꿈을 꾸고 밖으로 나와 삼형제를 발견하고 그들을 구해 준 뒤 종이와 먹을 사서 과거를 보라며 돈 열 냥씩을 준다. <이중춘 본>의 경우도 배좌수가 청룡, 황룡이 엉킨 꿈을 꾸고 삼형제를 구해 준 뒤 밥상을 차려 준다.

삼형제는 배나무에서 내려온 뒤 시험장으로 달려가지만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고대중 본>, <안사인 본>, <이중춘 본>의 경우에는 상시관에 들어갈 문이 이미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며, <박봉춘 본>의 경우에는 다른 선비들이 종이와 붓과 먹을 모두 사 들고, 문지기에게 삼형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김명윤 본>에서는 먼저 간 아이들이 많아서 문 안에 들어서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글을 써서 던진다. <김병효 본>에서는 외조부가 말한 것처럼 문 밖에서 글을 써서 던진다.

〈김명윤 본〉과 〈김병효 본〉을 제외한 다른 본에서는 또 원조자에게 도움을 얻게 된다. 〈고대중 본〉의 경우는 청태산 마고할망의 집에 들러서 하루 신세를 지며 상시관 조반 밥상을 차려 가는 아이 편에 글을 부쳐 상시관 앞에 떨어뜨리게 한다. 〈박봉춘 본〉의 경우에는 백주할망이 선비들이 지필묵을 모두 다 사들인 것을 알고 집에 있는 종이와 붓과 먹을 삼형제에게 준다. 삼형제는 종이에 시를 적어 상시관에게 던진다. 〈안사인 본〉의 경우 팔죽 팔던 할머니 삼형제가 우는 것을 보고 자신이 버릇물 걷는 일을 하니 글을 써서 주면 전달해주겠다고 한다. 〈이중춘 본〉의 경우 팔죽 팔던 할머니 삼형제가 가거든 시장기를 면해 주고, 종이와 붓과 먹을 사다 주고, 쓴 글은 손자에게 상시관의 식사를 가져갈 때 들고 가라는 꿈을 꾸 후 삼형제를 도와준다. 각 편 모두에서 어려움을 원조자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삼형제는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된다.

13)은 모든 채록본에 공통적인 내용이다. 삼천 선비들이 상시관에게 중의 자식을 급제를 시켰다며 항의하자 상시관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는다. 삼천 선비들이 조반상(朝飯床)을 차려 주면 알 수 있다고 하여 차려 주니 과연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 상시관은 삼형제의 과거를 취소한다.

14)는 채록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고대중 본〉과 〈안사인 본〉, 〈이중춘 본〉의 경우는 연주문을 맞춰 쓰러뜨리고 다시 과거가 내려지며, 〈김명윤 본〉에서는 화가 난 삼형제가 연주문(延秋門)과 종각(鐘閣)을 부수고, 〈김병효 본〉의 경우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원망을 한다. 〈박봉춘 본〉의 경우 과거를 시켜 준다는 삼천 선비의 꼬임에 빠져 연주문과 종각을 부순다.

15)의 경우도 각 편에 따라 차이점을 보인다. 〈고대중 본〉의 경우 아들을 너무 훌륭하게 낳았다고 주옹 서천문에 갇힌다. 〈김명윤 본〉과 〈박봉춘 본〉의 경우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궁에 갇힌다. 〈김병효 본〉에서는 어머니가 감금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으며, 〈안사인 본〉과 〈이중춘 본〉의 경우 삼천 선비들이 아기씨를 궁에 가두어 둔다. 〈고대중 본〉과 〈안사인

본), 〈이중춘 본〉에서는 노비 해방을 시켜 주겠다는 삼천 선비의 꼬임에 빠져 여종이 어머니의 거짓 죽음을 알려 삼형제는 과거를 버리고 어머니를 찾아 떠난다. 〈박봉춘 본〉의 경우 삼형제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삼형제 대신 잡혀갔다는 소식을 여종에게서 듣는다.

16)의 경우 〈고대중 본〉, 〈안사인 본〉, 〈이중춘 본〉에서는 삼형제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자 배석자리를 내어 주며 황금산 도단 땅에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한다. 〈김명운 본〉과 〈이병효 본〉은 해당 내용이 없으며, 〈박봉춘 본〉의 경우 서사 전개 과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본과 전개 순서가 다르다. 〈고대중 본〉과 〈이중춘 본〉의 경우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에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를 만나 의형제를 맺는다.

17)과 18)의 경우는 채록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김병효 본〉에는 삼형제가 과거에 떨어진 뒤 아버지를 찾아가 원망을 하니 과거보다 좋은 것이 있다며 무구(巫具)를 만들어 굿을 하게 한다. 삼형제가 굿을 하니 인간 세상에 변국(變局)이 났다고 삼차사가 와서 굿을 한 연유(緣由)를 묻고 어머니를 살려 준다.¹⁷⁾ 〈김명운 본〉의 경우에도 삼형제가 과거에 떨어진 뒤 아버지를 찾아가 원망을 하니 아버지는 과거보다 더 좋은 것을 시켜 준다고 한다. 버드나무로 북과 장구를 만들고 정대장장자에게 팽과리와 명도를 만들게 한 뒤 명도로 점괘 보는 방법을 일러 준다. 어머니가 지옥문에 갇혀 있으니 가서 살려 오라고 하니 삼형제가 가서 연주문 부순 죄로 저승왕의 삼시왕으로 들어서겠다고 한다. 〈이중춘 본〉의 경우 머리를 깎고, 가사 장삼을 입어보라며 친자 확인을 한다. 뱃나무로 북과 장구를 만들고 쇠철이 아들을 불러서 천문과 상잔, 신칼, 산판을 만든다. 초감제, 초신맛이, 시왕맛이제를 하고, 무구를 가지고 가서 삼형제가 옥황에서 굿을 하니 어머니가 풀려난다. 〈고대중 본〉의 경우 아버지를 찾아가니 쇠철이 아들에게 요령과 신칼을 만들게 하고, 북과 장구를 만들

17) 〈김병효 본〉에서는 어머니의 감금 사실은 나타나지 않지만 어머니의 구출 장면은 나타난다.

고, 초감제, 초신맞이, 시왕맞이제를 한 후에 서천문에 가 어머니를 구하게 한다. 〈안사인 본〉의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으려면 전생팔자를 그르쳐야 한다며 초감제, 초신맞이, 시왕맞이제를 한다. 삼천천제제석궁 앞에서 무악기를 열나흘 동안 울리니 어머니를 석방한다.

19)에서 〈김병효 본〉의 경우 삼차사가 삼형제에게 금법당을 높게 짓고 어머니를 앓히라고 하고, 〈안사인 본〉의 경우 삼형제가 궁 밖 삼거리에 천하대궐을 지어 놓고 너사메너도령에게는 무악기를 어머니에게는 천하대궐을 지키게 한다.

20)은 삼형제의 신직(神職) 획득 장면으로 모든 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김명윤 본〉은 연주문을 부순 죄로 삼시왕에 들어서고 양반에게 원수를 갚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김병효 본〉은 옥황에서 벼슬을 내려 금세상의 삼시왕이 된다. 〈안사인 본〉에서는 삼형제가 동해바다 쇠철이 아들을 불러 상잔, 천문, 요령을 만들고 신칼을 만들어 양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삼시왕이 된다. 〈이중춘 본〉의 경우도 스스로 양반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저승의 삼시왕이 되고, 〈고대중 본〉의 경우 아버지가 삼형제에게 와서 저승으로 가면 삼시왕, 이승으로 내려가서는 삼명두로 들어 살라고 하며, 과거 낙방 시킨 선비들에게 양반 잡던 칼로 원수를 갚으라고 한다.

21)은 유정승 따님이 심방이 되는 이야기로 독립적인 이야기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김병효 본〉과 〈박봉춘 본〉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곳에서 심방이 무조가 행했던 과정을 똑같이 거쳐서 탄생했다는 신과 인간의 중개자로서의 권능(權能)을 강조하기 위해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초공본풀이〉 각 편은 대체로 이와 같은 순서로 사건이 전개되지만 〈박봉춘 본〉의 경우 다른 본들과 전개 순서가 다르다. 〈박봉춘 본〉의 경우는 삼형제가 과거에 떨어진 분풀이로 연주문을 부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산두꺼비 같은 짐승을 만나 과거보다 심방이 되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듣는다. 다른 본에서는 발

견되지 않는 부분으로 산두꺼비의 등장은 이후 전개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본에서는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외조부나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만 <박봉춘 본>에서는 집으로 돌아온 삼형제는 어머니가 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서 연주문을 다시 세우고 무구를 만들어 옥황에 올라가서 곳을 하게 된다. 옥황에서 상시관이 삼형제의 노력에 감동하여 어머니를 석방시키고 삼형제는 아버지를 찾아가 과거 못한 원망을 하게 된다. 다른 본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구출 방도를 알려 주는 데 비하여 <박봉춘 본>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축소되어 나타난다. 대신 삼형제의 행동은 보다 적극성을 나타내어 스스로 어머니를 구해내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원망한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상잔과 천문을 받아보라고 한다. 외할아버지 덕에 이르자 아기씨와 외조부모가 감격적인 상봉을 하며 아기씨의 서러운 팔자를 닦으며 눈물을 흘린다. 외조부는 삼형제가 과거에 낙방한 일을 알고 저승 삼시왕(三十王)에 들게 하여 삼천 선비에게 원수를 갚게 한다.

2. 초공에 해당하는 인물

<초공본풀이>를 연구할 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본풀이의 대상이 되는 ‘초공(初公)’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지만 논의의 초점이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야기 전개에서 누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신직을 얻게 되는가?’ 하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전개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이 당연히 본풀이의 대상이 될 것이다. 큰곳의 제차(祭次)를 살펴보면, 본풀이의 대상이 되는 신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제주도 큰곳에서 살펴 볼 때 <초공본풀이>는 창세신에 대한 본풀이인 <천지왕본풀이> 다음으로 불리워지기 때문에 창세신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해당하는

신이 ‘초공’임을 알 수 있다. 본풀이에서 누가 얼마나 중요한 신직(神職)을 획득하게 되느냐를 따지면 본풀이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초공본풀이〉에서 주된 서술 대상이라면 당연히 아기씨와 삼형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아기씨와 삼형제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아기씨는 임정국 대감부부가 늦은 나이에 간절한 기원으로 얻게 된 딸이다. 딸을 소중하게 키우던 임정국 부부는 딸이 열다섯에 이르러 벼슬 살러 떠나면서 딸을 곁곁으로 싸인 집 안에 가둬놓는다. 아기씨가 있어야 할 곳은 집 안이며 집 밖에서의 행동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임정국대감님은 천양공스 살레 오라. 짐진국부인님은 지아공스 살레 느려오라.” 분부가 느리니 부베간이 앓아놓고, “자, 이 아기씨 어찌하여두고 가민 조으리야. 남즈의 즈식이면 책실로나 드랑가컬, 예즈식이니 어찌 홀 수 엇는 일이다.” 업영 가도 못히고 드랑 가도 못히고 부베간이 이논흔 게 이른 으둡 비겟살장 고 무살장 무어놓고 아기씨를 살장 안에 놓아, 느진덕정하님아피 말을 흐뵈, “우리가 공스 살앙 올 때까지 궁기로 밥을 주곡 궁기로 옷을 주멍 아기씨를 키웁시민 우리가 공스 살앙 왕 종문세 돌려주마.” “어서 걸랑 기영흡서.” 아기씨는 비새ㄱ찌 울어간다. 흐는 수 옷이 아기씨를 비겟살장 안에 놓아 아바님이 중근 거슴통쇄 어머니 감봉수레흐고 어머니 중근 거슴통쇄 아바님이 감봉수레허연 천양공스 지아공스 살레 나아간다. 〈안사인 본〉

아기씨가 갇힌 곳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되는 계기는 주자 대사가 삼천 선비와 아기씨에게 시주받아 오는 내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주자 대사가 찾아와 아기씨가 직접 시주해야 한다고 하자, 아기씨는 집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 주면 나가서 시주하겠다고 말을 한다. 주자 대사는 쉽게 아기씨에게 접근을 하고 신통력으로 아기씨를 갇힌 곳으로부터 나오게 한다.

느진덕정하님이 권제를 거려아진 대문 뱃길 나사난 추젓선심이 말을 흐뵈, “느진덕정하님아, 아기씨 원뻥을 잊져 흐는디 아기씨 손으로 혼 가지깁이 권제를 내

보냄서.” “추젓대선싱님아, 아기썸 아바님 어머님 공스 살레 갈 때 이룬으담 비게 살장 마은으뜸 고무살장 안에 노안 마은으뜸 거심통췌 감봉수레호고 갔십내다.” “그러거든 아기씨아피 강 말 혼 마디 물어보옵소서. 제가 마은으뜸거심통췌 올건 아기씨 손으로 권제를 내오리카 물어보고 오십서.” 느진덕정하님이 아기씨상전아 피 간 일렀더니, “어서 걸랑 그리호라.” 추젓대선싱이 그 말 췌데 천양낙화금정옥 술발 혼 번을 둘러치니 고무살장문이 요동호고 두 번을 둘러치니 거심통췌가 요동호고 식번을 둘러치니 마은으뜸거심통췌가 절로 설강 올라진다. <안사인 본>

시주하는 과정에서 주자 대사는 아기씨의 상가마를 세 번 쓰다듬게 된다. 이는 아기씨의 잉태의 계기가 되면서 부모와의 이별의 원인이 된다. 아기씨는 집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밖으로 나온 아기씨는 다양한 원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자 대사를 만나게 된다. 주자 대사를 만나고도 부부 확인 시험을 거쳐야 했던 아기씨는 새들의 도움을 받아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다.

“날 찾아온 인간이건 츠나룩 시동이를 내여줄태이니 츠나룩 술을 착쫘 으시 까 들이라.” 호으시며 츠나룩 시동이를 내여준다. 가지고 가서 손콍으로 까가니 손콍 아파 못내간다. 니빨로 까가니 쫘이 삭아 아니된다. “이만호민 어찌호리.” 앓아둡 서루 양천통곡을 호다 무정눈에 줌이 든다. 준지새여 만우새여 영낭새여 호박새가 느려오고 방울방울 돈돈이 까놓아 동이바위에 앓았구나. <고대중 본>

부부로 인정을 받고도 같이 살림을 차릴 수 없어 아기씨는 불도땅에 내려가 살며 삼형제를 낳게 된다. 삼형제는 아기씨의 왼쪽,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을 꿰고 태어난다. 삼형제의 출생 이후 이야기의 초점은 삼형제에게 맞추어진다. 삼형제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서당에 나가서 잔심부름을 하며 글을 배운다. 삼형제가 활동하는 공간은 아기씨가 집 안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성장의 과정을 보낸 반면에 집 밖의 공간인 서당이 삼형제의 주된 성장의 공간으로 등장한다.

굵은 연췌 놔주난 불도땅에 들어가네. 친구월 초으드레 근당호난 아기씨 상전님이, “아야 베여 아야 베여!” 큰아들 솟아나저 호는디 어머님 알로 나저 호췌,

“아버님이 아니 보아난 그릇질이여.” 어머니 느단 즈드랭이 허우튼어 큰아들 솟아나고, 여레드레 근당흐나나 셋아들 솟아나저, “알로 낱저, 아버님이 못내 본 그릇이라, 우리 성님도 아니 나와난 질이여.” 웬 즈드랭이 허우튼어 솟아나고, 수무으드레 죽은아들 솟아나저흐니, “알로 낱저, 아버님이 못내본 그릇이라, 우리 삼성제 솟아나저 흐니 어머니 가심인덜 아니 답답흐리야.” 어머니 애손 가심 허우튼어 솟아나, 초사홀 당흐니 모욕상잔 내여놓고 몸 모욕을 시기니 어머니 내여준 상잔이 돼옵네다. …… (중략)…… 오답설 나는 혜연 놈의 즈식덜은 삼천서당 글공벌가건마는 삼성제는 돈이 웃언 글공뷔 못흐난, 흐를날은 삼천서당 들어간 선성님에 원정들어 큰성님은 삼천선비 베릿물 놓기로 마련흐고 셋성님은 선성님 방에 젓따리 비우고 방안칩기 마련흐고 죽은아신 선성님 눅는 방의 굴목지기로 들어산이녀 말은 일 다 허여지민 굴목 어귀에 몰아앗앙 손바닥으로 불치를 꿩준흐게 골라놓고 하늘친 따지를 쓰는 게 초초맹장이 돼여간다. 글도 장원 돼여간다. 삼천선비가 삼성제 별호를 지우웨 불치에서 공뷔흐니 ‘젓부기 삼성제’로 일름 삼제 지웁네다. <안사인 본>

나이 열다섯에 이르러 삼형제는 삼천 선비와 함께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난다. 삼형제는 뛰어난 글재주를 갖고 있어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던 삼천 선비들은 삼형제가 과거에 합격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삼형제는 삼천 선비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원조자를 만나 도움을 얻고 과거에 합격하게 된다. 이들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목적인 것(과거 급제)을 성취했지만, 이들은 중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과거가 취소된다. 과거 취소 이후의 전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편마다 차이가 난다.

중의 자식이 분명하다. 청일산도 건우운다. 흑일산 백일산 다 건우고 삼형제가 과거 낙방을 하였구나. 다시 고쳐 상시관이서 영이 느리되 “연주문 맞추는 자가 시면 과거를 주마” 영을 느리운다. 삼천선배는 연주문을 못내 마치고 젓부기 삼형제가 활을 바라 노니 연주문이 맞아서 떨어진다. <고대중 본>

이젠, 상시관은 일관리 일제성도 거두고 주내 사납 나팔 고동 쌍사납 꼭쿨 거두고 배실 찻단 종이도 거두운다. 배실이 거두와가난 큰아들은 부회가 난에 연주문을 간 자락 두리찬다. 연주문이 안부수와지난 또시 셋아들이 간 두리찬다. 그영 흐여도 안부수와지난 이번은 죽은 아들이 간 두리찬난 연주문이 문밖 부서지는구

나. <김병호 본>

각 편에 따라 <고대중 본> 처럼 상시관이 연주문을 맞추는 자에게 과거를 내리겠다고 하니 아무도 맞추지 못하자, 연주문을 맞춰서 다시 과거에 급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천 선비는 삼형제를 과거에 낙방시키기 위해서 삼형제 대신 어머니를 궁에 잡아 가둔다. 결국 모든 채록본에서 삼형제는 과거를 포기하게 된다.

삼천선배가 중이 자식인줄 알아도 과거를 주니 과거 낙방 시킬 수가 없어 늦인 듯이정하님신디 달려오라 “늦인듯이정하님아 느네 상전 과거 낙방시켜주면 우리 삼천선배가 돈 삼천냥을 모여주마. 종바약을 해여 너만 살면 어찌허냐?” “걸랑 그리하옵소서.” 앞발의 출병을 허고 뒷발의도 헛출병을 하고 과거허연 노는디 쫓아가서 머리 풀며 둘러들며 “상전님아 상정님아 호걸도 호걸입내다. 야귀도 야귀니다. 큰 상전님은 어제 그저갯날 죽어 앞발에 출병하고 뒷발에 출병허여 두영 오랏내다.” “아마따버라 이것이 웬말이나? 청일산도 돌아가라. 흑일산도 돌아가라. 백일산도 돌아가라. 선후배도 돌아가라.” 과거해여 돌아오다 상만나니 과거 낙방하여서 돌아온다. <고대중 본>

삼형제는 사라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외조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소재를 알게 된다. 삼형제가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세속적인 가치 추구에 대한 실패는 전생 팔자를 그르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¹⁸⁾ 이는 세속적인 것에 대한 초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전생 팔자를 그르치고 최초로 곳을 하는 역할을 맞게 된다. 곳을 최초로 벌인 사람이면서 저승의 삼시왕으로 들어서게 되는 삼형제는 ‘처음 사람’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초공(初公)’의 뜻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삼형제는 신이 된 최초의 사람이며, 곳을 행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최초의 어떤 행위를 한 삼형제가 ‘초공(初公)’임에 분명하다.

웨진 땅서 안산 온 본매본장 배석자리 갈아 질삼배를 혼난 설운 애기덜 초전승

18)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곳을 처음 시연하게 되지만 어머니가 궁에 갇히게 되는 이유를 생각할 때 세속적 가치 추구가 결국 팔자를 그르치게 한 원인이다.

을 그르쳤고나. 어멍 좃젠 흐민 심방해여사 어멍 좃넨 흐난 심방을 흐고, 정시를 흐고, 어멍만 좃넨흐민, 벨 일이라도 허쿠덴 굴으난, 착흐다 기특흔 즈식이여. …… (중략)…… 주점선생 시기는데로 큰 아들은 초감제를 흐고, 셋아덜은 초신맛일 흐고, 죽은 아덜 초체 올려 초궁 하늘, 이체 올려 이궁 하늘, 삼체 올려 삼궁 하늘, 옥황에 첫복소릴 올려난 범으롭서. ……(중략)…… 설운 애기들 옥황에 첫복소릴 올리난, 어머님 신가심을 풀려네 편듯흐게 나사난, 설운 어머님아, 어머님 좃젠해여 우리덜 전승팔재 그르쳤수다. 양반 원술 가프젠흐민 어멍흐코. <고대중 본>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기씨보다 삼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 본풀이의 중심이 되는 신직 획득을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하게 <초공본풀이>에서 ‘초공’이 누구인가를 살필 수 있다.

천부에 나은 몸이라, 과거에 참방하오나 락방식켜 공명을 못 이루우니 이런 서룬 일이 또 어디 잇습니까 하니 조부왕이 이 말 듯고 분하고 괴약히 생각하야 하는 말이 그보담 더 조흔 일이 만니 잇스니 부테 분히 생각말나 하고 분부하는 말삼이, 저승 삼시왕으로 가라 시왕대권제(十王大勸齋)를 주며 저승으로 도라가서 일천 선배의 원수를 갓흐라. 그러면 아방에 어든 물건은 엇지합니까 하니 그는 저승가는 길에 세경 암자땅의 집을 지어서 직히고 잇스면 밧으러 올 사람이 잇스리니, 그때란 내여주라. 그리하여 네 어멍은 어궁도 복차지로 사라서 인간의 복을 주고 너의 삼형제는 목숨차지로 사라서 인간의 명을 주라 하시니 그후부터 명영대로 복차지 목숨차지 하게 되웁고 일천 선배 원수 갓혔습네다. <박봉춘 본>

그영흐연 시성제가 간 어멍을 살려오란 흐느느 말이, “우리 삼성젠 연주문 부시대긴 죄로 저성왕의 삼시왕으로 들어사쿠다.” 삼성제가 저성왕으로 들어가난 “어멍이랑 백몰래왓 한가름에 강 집짓영 삼서.” 흐연, 서천강 연그이 간 집을 짓느니 매딱 이른 으듭 고무살장 맹들아놓고 당발 맹글안 당을 매였구나 정흐연 어멍그라 흐는 말이, “맹두 엇이 굿흐레 오랏건 맹두만 내여주지 맙서. 일천기덕 삼만제기 그걸 흐영 직하영 앗앙, 스나이랑 오랏건 아들로 삼곡, 예즈랑 오랏건 딸로 삼양 빌려줍서.” <김명운 본>

삼형제의 신직은 인간의 목숨을 관여하는 저승의 삼시왕으로 나타나지만 어머

니의 경우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박봉춘 본〉과 같이 복차지 신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금법당을 지키는 역할을 삼형제가 어머니에게 맡기는 모습만이 나타난다. 어머니를 인간의 복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보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인 삼형제가 보다 높은 위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큰곳에서 창세가인 친지왕본풀이 다음에 초공본풀이가 불려진다는 사실에서 초공은 목숨차지 신을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삼형제에게서 우리는 시련 극복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인물로 변화하게 되는 전형적인 신화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아기씨와 삼형제에 대한 주자 대사의 태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아기씨가 남편을 찾아가 부부 확인 시험을 거치는 장면이 모든 자료에 두루 나타나지만 삼형제가 아버지에게 확인 시험을 거치는 장면은 〈이중춘 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아기씨는 남편을 만나서 집에서 쫓겨난 자신의 신세에 대한 원망을 하지 못하지만 아들들의 경우에는 다르다. 아들들은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과거 낙방에 대해 항의한다. 〈김명윤 본〉에서는 “무신 따문 중으로 안살민 못살아 우리들 배설을 못하게 흡디가?”, 〈김병효 본〉에서는 “아바님아 미신 일로 경 홀 일이 었언 중으로 땡집디가?”라고 삼형제가 아버지에게 말한다.

삼형제와 아기씨의 성별의 차이로 인하여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주를 받을 때 주자 대사의 당황스러운 행동에 대한 여종과 아기씨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성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애기씨가 권재삼문 비와두고 흑흑게 돌아사니 으신 손이 내돌아 애기씨 상가매를 연시번을 쓰느고. 늦인득이정하님이 “이중 저중 괴썸한 중이로다. 양반 집인 못땡길 중이로다. 괴썸한 중 어서 가라.” 일르시니 소서중이 말을 흐되 “지금은 날 보고 후욕 논육을 흡내다마는 석달열흘 백일되면 날 생각이 무디무디 나오리라.” 〈고대중 본〉

아기씨와 한임이 민망히 역여 갖치 쌀을 주서줄 때 업섯던 한 손이 장삼 속으

로 번적 나오더이 “참 아기씨 곱다. 곱다. 곱다.”하며 아가씨 상가매 머리를 삼 세 번을 어르만즈니 아기씨 깜작 깜작 놀내니, 한임이 이를 보고 이 괴약한 중이라 하며 뺨을 한 번 치니 대사가 노하여 나아가며 하는 말이 너의들이 연삼월이 못 되야 나를 차를 때가 잇스리라 하거늘. <박봉춘 본>

유정승 따님이 심방이 되는 이야기에 주목하여 이를 아기씨의 재생으로 보고 아기씨를 ‘초공’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¹⁹⁾ 그러나 유정승 따님이 아기씨라고 본 것은 자료에 대한 고찰은 자료를 너무 채록본의 비교 과정 없이 <안사인 본>의 끝부분인 “두일똥 열나을 전세남을 흐와 유전승 따님아기 이큰일곱 대천국 저올려 좋은 전승팔즈 그르쳐 읍던 초공난산국 불리공입네다.”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열나흘 동안 전세남긋을 하여 유정승 따님은 77세에긋을 잘하여 천하를 울리고 초공 내력의 근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풀이가 끝남을 알리는 것이지 유정승 따님아기가 초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유정승 따님을 아기씨의 재생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삼형제의 어머니인 아기씨는 금법당(神法堂)을 지키는 존재이며 너사무너도령은 무악기를 지키는 존재이다. 유정승 따님 아기가 전생 팔자를 그르치게 되는 과정은 삼형제가 무조신이 되는 과정의 반복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중춘 본>을 살펴보면 아기씨가 유정승 따님으로 재생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어머님이랑 삼하늘에 지국홉서. 우리랑 저승 삼시왕에 들어사근 양반 원수 갓으쿠다. 너사무 삼형제그라 어느 날 어느 시간 당흐민, 느네들 둘앙 갈 사름이 이시난에 그때 까장 이디 이시렌 헤어두고, 켓부기 삼형제 저승 삼시왕에 올라 산다. 가다 보난에, 남천문밖 유정승 따님애기 친구 벗들이영 놀암시난, 요게 양반의 딸이로다. 어떻흐민 이 아길 전승팔재 그르치고, 아방국에 도올란에 주접선성 신디간 그 딸 굴으난, 기영 흐거들랑 요거 아상 간 파란공에 체우랜 흐연, 육간제 벌 내여주난, 그거 아산 느려오란, 유정승에 따님애기, 일곱술에 파란공에 육간제 벌 체와두고 저승 삼시왕에 도올르난, …… <이중춘 본>

유정승은 삼천 선비 중의 한 사람이라 한다. 무조 삼형제는 양반의 원수를

19) 윤교임, 앞의 글, 40~41쪽

값고 어머니를 살려내기 위하여 심방이 되었다. 유정승 따님 아기가 팔자를 그르쳐 심방이 되게 한 것은 양반에 대한 삼형제의 복수였다.²⁰⁾ 삼형제가 저승의 삼시왕으로 올라가면서 남천문 밖에 유정승 따님 아기를 보고 양반의 자식임을 알고 전생팔자를 그르치게 하려고 묘안을 생각하는 〈이중춘 본〉의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아기씨가 유정승 따님 아기로 환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초공본풀이〉 내에 등장하는 모든 신을 ‘초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공본풀이〉 내에서 신들의 위계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생각은 틀린 것이다. 무악기 제조신인 너사무너도령 삼형제는 아기씨 삼형제와 의형제를 맺는 인물들이고, 삼형제의 명령에 따라 무악기를 제조한다. 또한 상잔, 천문, 명도를 만든 동해바다 쇠철이 아들 또한 주자 대사 혹은 삼형제의 명령을 받는 하위직에 해당하는 신으로 볼 수 있다. 큰곳의 제차가 신들의 위계에 따른 순서라는 점에서 모든 신들을 ‘초공’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박봉춘 본〉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이름이 초공이, 이공이, 삼공이인 것으로 보아 삼형제 중 맏이를 ‘초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공본풀이〉에서 맏이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으며 삼형제는 함께 서술된다는 점에서 맏이를 ‘초공’으로 볼 수 없다.

중의 즈식 분명하다. 과거낙방 헤어간다. 삼천선비들은 과걸보안 낙방흐난, 연주문 맞치는 디로 과걸주멘 흐니, 삼천선비덜 연주문을 맞쳐간다. 흐 선비도 못맞치난, 젓부기 삼형제 곁는 말이, 우리들 중의 즈식이라 과거를 아니주어도 좋수다 마는 우리 기술이나 뵈와두영 가쿠덴허난에 걸랑 기영흐라. 젓부기 삼형제가 화살대를 잡고 봉애눈을 뵈릅뜨어 가니, 큰아들은 연주문 우월 맞치고 셋아덜은 알랄 맞치고, 죽은 아신 화살대를 등겨간다. 황금산의 영기신령 내왔고라 연주문을 잘락허게 썩러진다. 〈이중춘 본〉

중의 자식임이 밝혀져 과거에 낙방한 뒤 연주문을 맞추는 자에게 과거를

20) 장주근, 앞의 책, 145쪽.

내린다고 하니 삼형제가 연주문을 맞추어 쓰러뜨리는 장면이다. 이처럼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 중에 누가 혼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삼형제는 함께 행동하기 때문에 삼형제 중 만이를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 장에서는 〈초공본풀이〉의 서사 전개 과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 전개의 과정을 통하여 ‘초공(初公)’에 해당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다. 〈초공본풀이〉 전체에는 무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며 필연적으로 이는 무속과 일정한 연관을 가진 신의 내력을 풀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사 전개 과정을 분석한 결과 〈초공본풀이〉에서 가장 많이 서술되는 인물은 아기씨와 삼형제였다. 따라서 이 둘에 초점을 두고 서사 전개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을 비교하였다. 아기씨는 서사 전개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신직을 획득할만한 능력이 없다. 아기씨는 소극적인 인물이며 같은 여성인 여종과 비교했을 때도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기씨는 여성으로서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이 많으며 언제나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 머무른다. 아기씨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가족이 전부인데, 이러한 가족과의 관계도 주자 대사의 자식을 잉태함으로써 단절된다.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심방의 역할을 생각할 때 아기씨의 단절된 관계는 중개자로서의 심방의 성격과 정반대다. 아기씨는 신이 될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실제로 각 편에서 아기씨의 신직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본풀이의 서사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신직 획득의 과정은 본풀이의 대상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이다. 아기씨와 달리 삼형제의 신직 획득 과정을 보았을 때 삼형제는 최초로 굿을 하고 천상의 삼시왕에 들어서서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에 좌정(坐定)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 중 삼형제를 ‘초공’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Ⅲ. 의미 구조

표면적으로 드러난 서사구조의 아래에는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의미 구조가 존재한다. 서사구조를 이루는 내재적인 구조인 의미 구조를 찾는 것은 작품의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서사구조의 형성에서 사회적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의 개입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적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파악하는 것인 동시에 서사구조의 전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 장에서는 〈초공본풀이〉에 나타나는 의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만남—이별 구조

〈초공본풀이〉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만남—이별 구조가 반복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²¹⁾ 〈초공본풀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만남과 이별 그리고 재회의 구조를 가진다. 지금부터 〈초공본풀이〉의 내용을 살펴면서 이러한 구조를 밝혀 보기로 한다.

〈초공본풀이〉의 전반부는 아기씨 위주의 서술이므로 아기씨를 만남과 이별의 중심에 놓고 살펴야 한다.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 임정국 대감과 김진국 부인은 원불수록재를 드려 아기씨를 낳는다. 이는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렸던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아기씨가 15세에 이르자 임정국 대감 부부는 벼슬을 살려 가게 된다. 그러나 임정국 부부는 애지중지(愛之重之) 기르던 자식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집 안 깊숙히 가두고 떠난다. 15세에 이른 딸은 분명

21) 최시한(앞의 글, 193~194쪽)의 경우 이를 분리—결합의 원리로 설명하며 분리와 결합의 과정 사이에 시련의 과정이 존재한다고 한다.

나이가 차서 출가할 시기를 앞둔 성숙한 처녀라고 할 수 있다. 늦은 나이에 자식을 본 부부는 예정된 이별을 앞둔 자식과의 이별을 유예시키고 있다. 하지만 아기씨는 벼슬을 살려 가게 된 부모님과 일시적인 이별을 하게 된다.

아기씨는 벼슬을 살려 간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동안 주자 대사를 만나게 된다. 주자 대사는 신통력으로 집 안에 갇혀 있던 아기씨를 밖으로 나오게 한다. 시주를 하던 아기씨는 예기치 않은 주자 대사의 행동에 깜짝 놀라 그를 내쫓는다. 그를 내쫓으면서도 아기씨는 그와의 재회를 예감하고 증표를 빼앗아 놓는다. 주자 대사가 떠난 뒤 아기씨는 잉태를 하게 되고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께 발각되어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부모와의 이별은 결국 실현되고 아기씨는 남편인 주자 대사를 찾아가게 된다.

〈초공본풀이〉 후반부는 삼형제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이제 삼형제를 중심으로 만남—이별 구조를 고찰하겠다. 부부 확인 시험을 거쳐 부부임을 인정받은 아기씨는 불도 땅에 내려가 삼형제를 낳게 된다. 서당에서 재를 모아 놓고 바닥에 글씨 연습을 하던 젓부기 삼형제는 15세에 이르자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난다.

삼천 선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합격한 삼형제는 어머니의 죽음 소식에 집으로 달려온다. 어머니의 시신(屍身)조차 찾을 수 없자 삼형제는 어머니를 찾아 나선다. 삼형제는 아버지를 만나 어머니를 구할 방도를 알게 되고 곳을 하여 어머니를 궁에서 구출한다.

<표 1> 3대에 걸쳐 일어나는 만남과 이별의 내용

	만남	이별
제1대	늦은 나이에 아기씨를 낳음 (자식과의 만남)	옥황에 벼슬을 살려 감 (자식과의 일시적 이별)
	옥황에서 집으로 돌아옴 (자식과의 재회)	주자 대사의 자식을 잉태한 아기씨를 집에서 내쫓음 (자식과의 영원한 이별)
제2대	부모님이 벼슬 살려 옥황에 간 사이 주자 대사를 만남 (남편과의 만남)	주자 대사가 아기씨를 잉태시키고 떠남 (남편과의 일시적 이별)
	집에서 쫓겨난 아기씨가 주자 대사를 찾아감(남편과의 재회)	부부임을 확인하고 아기씨를 불도탕에 내려가서 살게 함 (남편과의 영원한 이별)
제3대	아기씨의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을 뚫고 태어남 (어머니와의 만남)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남 (어머니와의 일시적 이별) 어머니가 궁에 갇힘 (외부적 원인에 의한 이별)
	어머니를 궁에서 구출함 (어머니와의 재회)	어머니에게 금법당을 지키게 하고 천상의 삼시왕에 들어섬 (어머니와의 영원한 이별)

신월균은 〈초공본풀이〉를 아기씨의 입장에서 이별을 가장 중심이 되는 모티프로 파악하였다. 그는 각각의 이별을 부모와의 이별, 남편과의 이별, 자식과의 이별로 이야기하면서 일시적 이별은 희망을 내포한 이별이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이별은 영구적 이별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²²⁾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자식과의 이별에서 재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반전이 되고 작품의 결말이 맺어지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일시적 이별 뒤에 영원한 이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시적 이별 뒤에는 재회가 이어지게 된다. 재회가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그것이 영원한 이별로 발전하게 된다. 아기씨가 겪게 되는 자식과의 이별 부분은 일시적 이별 다음에 재회의 과정이 없이 또다른 이별을 갖게 된다. 즉 앞선 이별이 〈일시적 이별—재회—영원한 이별〉의 관계라면 자식과의 이별 부분에서는 〈일시적 이별—외부적 원인에 의한 이별—재회〉의 관계가 성

22) 신월균, 앞의 글, 363~364쪽

립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나타났던 일시적 이별 뒤의 재회의 과정이 없었기에 삼형제가 어머니를 구출하는 재회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된다.

〈초공본풀이〉는 3대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후대(後代)의 등장과 동시에 서술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제2대의 아기씨 이야기는 제3대의 삼형제의 등장으로 인해 이야기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다. 제2대의 이별의 모티프가 제3대에 이어지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2대인 아기씨의 입장에서 〈초공본풀이〉 전체를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 아기씨의 출산과 더불어 과업 수행의 임무는 삼형제에게 주어진 것이다. 삼형제는 주어진 신직의 획득이라는 과업보다는 세속에서의 출세를 더 바란다. 그러나 신직 획득이 〈본풀이〉가 지어진 이유이며, 이것이 바로 주인공에게 주어진 과업인 것이다. 〈초공본풀이〉는 삼형제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전생 팔자를 그르치고 신직 획득이라는 운명지어진 과업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작품이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기씨에게 주어진 이별의 한(恨)의 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풀이〉에 필수적 요소인 신의 내력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품이 결말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삼형제는 어머니와 단절되었던 외조부모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²³⁾ 작품의 절정은 어머니를 구출하는 장면이 아니라 삼형제가 팔자를 그르치게 되는 장면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전생 팔자를 그르치게 되었기 때문에 삼형제는 삼시왕에 들어서게 된다.

2. 시련—극복 구조

〈초공본풀이〉에서는 시련과 극복의 구조가 3대에 걸쳐 나타난다. 제1대에서 시련은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음이고 그 극복은 원불수륙재를 드려 딸을 낳는 것이다. 제2대에서의 시련은 주자 대사와의 결연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

23) 특히 〈박봉춘 본〉의 경우 삼형제가 단절되었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킨다.

게 되는 것이다. 그 극복은 주자 대사를 찾아가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제3대에서의 시련은 과거 시험장에 가기까지의 삼천 선비의 방해이며 그 극복은 과거 급제로 나타난다. 외조부나 어머니와는 다르게 제3대에서의 시련은 두 번에 걸쳐 나타나게 된다. 삼형제는 삼천 선비의 계략이나 자신들의 죄 때문에 없어진 어머니를 찾아가야 하는 시련을 겪게 된다. 어머니를 구출하게 됨으로써 시련을 극복한다. 외조부나 어머니와 달리 두 개의 시련의 과정을 겪는 제3대에서의 시련은 이전의 시련의 내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그 극복 과정에서 행위자의 행동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 3대에 걸쳐 일어나는 시련과 극복의 내용

	시 련	극 복
제1대	나이가 늦도록 자식이 없음	절에 원불수륙재를 드리고 자식을 얻음
제2대	주자 대사의 자식을 잉태하고 집에서 쫓겨남	주자 대사를 찾아가 부부임을 확인함
제3대	과거 시험장에 당도하기까지 삼천 선비의 방해	과거에 급제함
	어머니가 삼천천제석궁에 갇힘	어머니를 구출함

제1대에서의 시련은 자식을 늦은 나이에 이르도록 낳지 못함이다. 원불수륙재를 통해 자식을 얻음으로써 시련을 극복한다. 시련의 극복에서는 가치의 바뀜이 일어나지 않고 다만 소망한 것을 얻게 된다.

제2대에서의 시련은 아기씨의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아기씨는 가혹한 시련을 겪으며 큰 장애물을 만나면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게 된다. 그때마다 원조자의 도움을 받아 크고 작은 시련을 이겨내며 결국 남편과 만나게 된다. 남편과 만나서 부부 확인을 받는 작은 시련을 과정을 또한 거치게 되는데, 이 시련의 과정은 앞에서의 시련과 동일한 성격 즉, 남편과의 재회를 위한 시련으로 볼 수 있기에 하나의 시련으로 취급한다. 여기서도 제1대에서와 같이 소망한 것을 얻게 됨으로써 시련이 극복된다.

제3대에서의 시련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의 삼천 선비의 방해로 인한 시련이 첫 번째 시련이다. 삼형제도 역시 어머니처럼 시련 앞에 울기 시작한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원조자의 도움을 얻게 된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삼천 선비의 방해라는 시련을 극복한다. 과거 급제 후 중의 자식임이 밝혀졌다가 과거가 취소된 이후 다시 급제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 작은 시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련으로 본다. 첫 번째 시련은 외조부나 어머니의 시련—극복 구조와 다른 점이 없다.

삼형제의 두 번째 시련은 어머니의 감금이다. 삼형제는 어머니를 구하러 외조부와 아버지를 찾아가고 전생 팔자를 그르치고 곳을 하게 됨으로써 어머니를 구한다. 두 번째 시련은 첫 번째 시련의 극복을 통해 이룩한 소망을 실패로 돌아가게 한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시련은 시련의 극복 과정 속에서 실패로 돌아간 첫 번째 소망을 세속적인 것에 대한 초월로 극복하고 삼형제는 세속적인 것과 반대되는 신직 획득을 이루게 된다.

이 장에서는 〈초공본풀이〉의 내용 형성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의미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초공본풀이〉에는 3대에 걸쳐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조는 만남과 이별의 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텍스트의 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야기의 전개를 자연스럽게 이끈다. 시련과 극복의 구조에서 제3대인 삼형제가 겪는 시련의 내용이 외조부모나 어머니의 시련의 내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는 앞서 제Ⅱ장에서 살핀 ‘초공’에 해당하는 인물을 밝히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화에서 주인공은 시련을 극복하고 이전의 가치가 전이되어 나타나는데, 시련을 통해 가치 체계가 변한다는 점에서 삼형제는 〈초공본풀이〉의 주인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IV.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은 발현된 텍스트 아래 텍스트에 논리적으로 선행하고 그 의미를 규정하는 내재적인 구조를 가정한다. 통사·의미 양부분에 걸쳐져 있는 내재적인 구조는 크게 심층과 표층으로 이루어진 기호—설화 구조와 담화 구조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위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²⁴⁾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기호학은 텍스트 혹은 담화의 의미를 단순하고 추상적인 심층으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단계로 발전해 가는 생산 과정의 결과로 생각한다.

텍스트에서 의미는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그보다 심층에 위치한 문화 체계나 가치 체계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한다. 그 층위를 넘나들며 그를 둘러싼 사회와 대화를 나눈다. 신화에서 담화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통합체적 조직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 체계나 가치 체계를 이해하기 힘들다. 이야기에서는 통합체적 조직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계열적 조직까지 파악해야 한다. 이야기에서 하나의 양분론적 가치 체계가 있다고 할 때, 어느 가치가 긍정되거나 부정되는가는 이보다 더 큰 가치 체계에 의해 좌우된다.

신화에서 인물의 성격과 역할은 한 개인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의 반영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신화는 통합체라는 연속체에 투사된 계열체로서, 서로 대립하는 계열 관계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계열 관계는 이야기 전개에서 나타나는 시련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시련을 겪기 전과 겪은 후는 대립된 계열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시련의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긍정의 내용은 부정으로, 부정의 내용은 긍정으로 전환된다.

24) 김치수 외, 현대기호학의 발전(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197쪽

〈초공본풀이〉 역시 다양한 층위에서 가치를 긍정 내지 부정하며 의미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 작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와 연관되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의미 작용을 올바르게 포착한다면 그 사회의 문화 체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초공본풀이〉를 생물·무생물 차원, 가족·혈연적 차원, 사회·정치적 차원의 의미 층위로 나누어 인물의 역할과 행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물·무생물 차원

사회의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는 중심인물들의 성격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이들의 주변인물의 설정에도 반영되어 일정한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초공본풀이〉에서는 중심인물이 시련의 상황을 겪을 때 수많은 원조자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이를 살피기 위해서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물·무생물적 차원의 의미 층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초공본풀이〉에는 인물을 돕는 원조자가 각 편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작품에 등장하는 원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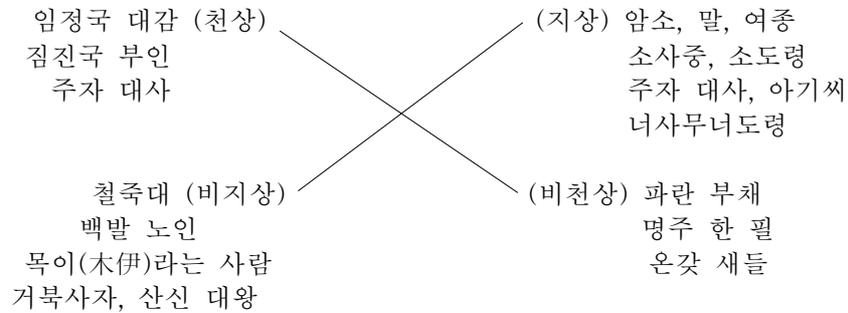
	고대중 본	김명윤 본	김병효 본	박봉춘 본	안사인 본	이중춘 본
(가)	암소 금동채 흰거북 검은거북 너사무너도령	백발노인 과란부채 철죽대왕 산신대왕 명주한필 소도령	암소 노인 소사중	맹두마 금봉채 목이(木伊) 라는사람 백발노인 흰개	검은 암소 금부채 용왕국 거북 사자	말 금부채 거북사자 철죽대
(나)	준지새 만우새 영낭새 호박새	부영이	은 섬의 새들	청왕조	천황새 지황새 인황새	부영새 도덕새 준지새 만호새 노년새 시년새
(다)	감좌수 배좌수	배나무 주인	외조부	옥황상시관 수별갑	배좌수	배좌수
(라)	청태산 마고 할만 상시관 조반 심부름꾼	없음	없음	백주할망	팔죽 과는 할멈 팔죽 할멈 딸	팔죽 과는 할멈 팔죽 할멈 의 손자

(가)는 아기씨가 남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원조자이고, (나)는 부부 확인 시험에서 도움을 주는 원조자이다. (다)는 삼형제가 과거 보러 가는 도중에 도움을 주는 원조자이고, (라) 삼형제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지를 제출하지 못할 때 도움을 주는 원조자이다.

생물·무생물 차원의 의미 층위에서는 먼저 인물들을 천상적(天上的) 존재와 지상적(地上的) 존재로 나눈다. 천상적 존재는 하늘에 위치하며 비범한 능력을 지닌 신을 말하고, 지상적 존재는 땅에 위치하는 평범한 인간을 말한다. 천상적 존재와 지상적 존재 사이에는 비천상적(非天上的) 존재와 비지상적(非地上的) 존재가 위치한다. 비천상적 존재는 신은 아니지만 신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 또는 물건이다. 비지상적 존재는 지상에 위치하지만 평범한 인간은 아닌 지상에 위치한 신적 존재이다.

먼저 아기씨가 주자 대사를 찾아가는 장면까지 등장하는 원조자인 (가)~(나)를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들을 생물·무생물 차원에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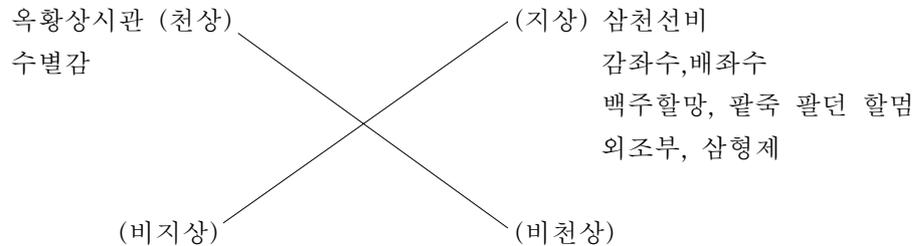
<그림 1> 아기씨가 남편을 찾아가기까지 등장인물



임정국 대감과 짐진국 부인은 옥황(玉皇)의 명령을 받아 벼슬 살러 간다고 하였으니, 임정국 대감과 짐진국 부인은 천상적 존재임에 분명하다. 아기씨는 아버지 임정국 대감이 준 금봉채나 행장거리에 실려 있던 파란 부채, 명주 한 필을 남편을 찾아가는 여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용한다. 이는 신은 아니지만 천상을 중재하는 비천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신 대왕과 백발 노인, 철죽대 등은 지상적 존재이지만 꿈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 또는 특별한 힘을 지닌 물건이라는 점에서 비지상적 존재로 분류한다. 아기씨가 대부분의 시련을 겪고 난 뒤 길을 안내하는 너사무너도령과 소사중, 소도령은 지상적 존재로 볼 수 있다. 천상적 존재는 지상을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다고 볼 때 여종과 아기씨 역시 지상적 존재이다. 주자 대사는 특이한 존재로 하늘에서 내기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천상적 존재이며 동시에 지상에서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지상적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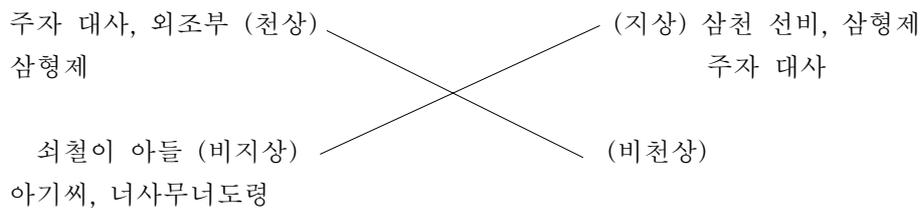
다음으로 삼형제가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자. 천상/지상, 비천상/비지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삼형제의 과거 시험과 관련된 등장인물



삼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주로 인간에 해당하는 인물 유형이다. <김명윤 본> 과 <김병효 본> 에서 외조부는 천상적 존재이며 동시에 지상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지상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특히하게 <박봉춘 본> 의 경우 지상에서의 일을 천상의 인물이 관여한다. 삼형제의 어머니 찾아가기 여행을 살펴 보면 삼형제는 아기씨와 달리 천상과 지상의 공간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삼형제가 어머니를 구출하고 신직(神職)을 획득하기까지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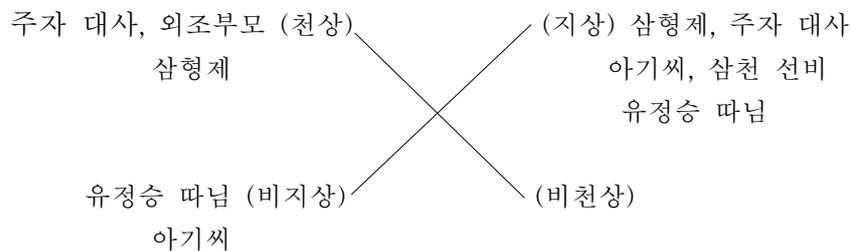
<그림 3> 삼형제의 과거 낙방 이후 신직 획득까지의 등장인물



삼형제는 외조부가 사는 땅과 아버지가 사는 땅을 아무런 제약 없이 넘나들기 때문에 천상적 존재이면서 지상적 존재이다. 쇠철이 아들과 너사무너도령은 주자 대사의 명을 받들면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비지상적 존재이다.

지금까지의 사실을 정리하여 <초공본풀이> 작품 전체에서 중심인물의 생물·무생물 차원의 기호학적 정방형에서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작품 전체에서 인물의 생물·무생물 층위에 따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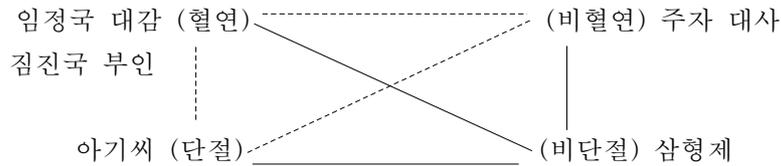


중심인물들 중 아기씨는 끝내 천상에 위치하지 못하고, 지상의 금법당을 지키는 존재이다. 반면 삼형제는 저승의 삼시왕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천상의 신의 위치를 획득한다.

2. 가족·혈연적 차원

<초공본풀이>는 삼대에 걸친 이야기라는 점에서 가족·혈연적 차원의 의미 층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족·혈연적 차원에서는 인물들끼리 어떠한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족 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심이 된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생물·무생물 차원이 서사 전개에 따라 변화하며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반면 가족·혈연적 차원의 의미 층위는 단순하게 나타난다. 가족·혈연적 차원에서는 혈연관계와 관계의 단절을 중심으로 인물 간의 관계를 살필 수 있겠다. 두 가지 요소를 함께 표현할 수 없기에 여기에서 점선으로 관계의 단절을, 실선으로 관계의 비단절을 나타내도록 하겠다.

<그림 5> 작품 전체에서 인물의 가족·혈연적 층위에 따른 분포



아기씨는 주자 대사와 부부 관계이므로 피로 맺어진 혈연의 관계가 아니다. 아기씨는 가족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다. 삼형제의 경우는 임정국 대감, 짐진국 부인의 외손주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다. 삼형제는 주자 대사와 외조부모, 아기씨와 혈연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기씨는 남편인 주자 대사와는 비혈연의 관계이다. 삼형제는 주자 대사의 아들로서 아기씨를 통해 외조부모인 임정국 대감과 짐진국 부인과의 관계가 형성되며 아기씨와 달리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다.

<표 4> 가족·혈연적 차원에 따른 분류

가족 관계	가족·혈연적 차원
아기씨 : 임정국 대감, 짐진국 부인	단절 : 단절, 혈연 : 혈연
아기씨 : 삼형제	비단절 : 비단절, 혈연 : 혈연
아기씨 : 주자 대사	단절 : 단절, 비혈연 : 비혈연
삼형제 : 주자 대사	비단절 : 비단절, 혈연 : 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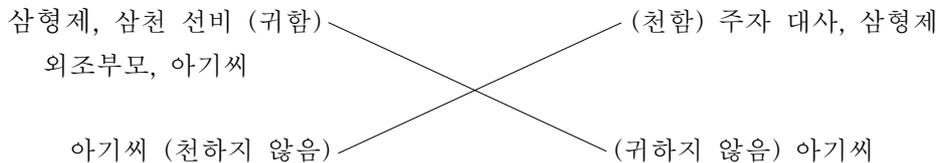
삼형제는 중심인물과의 관계가 모두 혈연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관계가 모두 단절적이지 않다. 반면 아기씨는 비혈연적인 관계도 맺고 있다. 비혈연적 관계인 주자 대사와의 비정상적인 관계로 인해 혈연적 관계인 부모와도 관계가 단절된다. 주자 대사와의 관계 역시 단절적이다. 다만 아기씨와 삼형제는 비단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삼형제가 어머니를 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삼형제와 어머니가 갖고 있는 단절적 속성과 비단절적 속성의

결합에서 비단절적 속성이 둘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절적 속성보다 비단절적 속성이 우위에 있음은 주자 대사와 임정국 대감 부부의 관계를 살펴볼 때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 정치·사회적 차원

〈초공본풀이〉에서 정치·사회적 의미 층위는 다스림이라는 정치적 차원은 삼천 선비와 삼형제에게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귀천(貴賤)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의미 층위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치·사회적 차원의 범주는 기호학적 정방형에 귀함/천함, 귀하지 않음/천하지 않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작품 전체에서 중심인물의 사회적 층위에서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작품 전체에서 중심인물의 사회적 층위에 따른 분포



주자 대사는 중이므로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에 해당한다. 삼천 선비는 삼형제를 중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천한 신분으로 취급한다. 아기씨는 대감집 외동딸로 귀하게 자란 귀한 신분이면서 주자 대사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기 때문에 귀함에서 귀하지 않음으로, 또 주자 대사와 만나지만 같이 지내지 못하게 됨으로서 천함에 해당하지 못하고 그 중간 성격의 천하지 않음에 위치하게 된다. 삼형제는 귀함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거 급제를 하여 그 위치에 도달하나 삼천 선비에 의해 중의 자식임이 드러나 천함의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

삼형제의 귀함의 위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며 마침내 삼형제는 정치

적 측면에서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삼천 선비와의 관계를 역전시킨다.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 된 삼형제는 인간인 삼천 선비를 지배하고 삼천 선비는 삼형제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는 삼천 선비에 대한 복수의 성격과 더불어 신분 관계의 전복을 의미한다. 사회적 층위와 정치적 층위는 보통 동일한 의미 층위를 형성하게 되는데, 〈초공본풀이〉에서는 특이하게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 수 없던 가치를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게 된다. 어머니를 구하는 과정이 사회적 차원에서 낮은 곳에 위치한 삼형제가 정치적 차원에서 위치를 역전시켰다는 것은 주자 대사와 아기씨의 비정상적 결합이 삼형제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원인인 동시에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기에 정치적 차원으로 해소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초공본풀이〉에 내재된 의미 층위를 생물·무생물 차원과 가족·혈연적 차원, 정치·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생물·무생물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아기씨는 지상적 존재에서 천상과 지상을 잇는 비지상적 존재로 바뀌게 된다. 삼형제는 지상적 존재에서 팔자를 그르침으로써 천상적 존재로 바뀌게 된다. 유정승 따님의 경우 삼형제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비지상적 존재로 천상과 지상의 매개 역할을 하는 심방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유정승 따님은 처음에는 천상과 인연이 없는 지상적 존재에 불과했지만 77세에 이르러 곳을 벌이게 됨으로써 마침내 비지상적 존재로 신과 인간 세상의 중개자의 역할을 얻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삼형제가 천상의 신이 된 것에 비하여 유정승 따님이 비지상적 존재에 불과한 것에서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사회적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읽을 수 있다.

여성인 어머니는 천상의 신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생물·무생물 차원에서 아기씨는 금법당을 지키라고 삼형제에게 명령을 받는 열등한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 제물이 백 근에 차지 못해서 낳는 자식이 딸이라는 것도 이러한 문화 체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가족·혈연적 차원에서는 윤리적 가치 체계를 엿볼 수 있다. 주자 대사로 인

하여 비정상적 결연을 맺게 된 아기씨는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된다. 더구나 남편과의 관계까지도 단절된다는 점에서 여성에게만 윤리적 가치를 강요하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 체계를 엿볼 수 있다.

정치·사회적 차원에서는 삼형제의 행동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체계를 엿볼 수 있다. 출세 지향적인 삼형제는 고귀한 지위를 성취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보인다. 결국 이러한 삼형제의 노력은 생물·무생물 차원에서의 천상적 지위 획득을 통하여 정치적 차원에서의 우위를 함께 확보하였다.

이상에서 〈초공본풀이〉를 기호학적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역할과 행동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공본풀이〉의 모든 내용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보다 열등하게 취급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아기씨가 억울한 희생물로서 사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려낸다. 여기서 아기씨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인물이며 남성 지배 사회의 횡포 속에 윤리적인 강요를 당하는 인물이다. 〈초공본풀이〉에 나타나는 여성의 모습은 사회적인 제약을 가졌고 남성에 비하여 활동의 영역이 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은 제약된 공간에서의 활동만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곧 시련을 겪는 원인이 되었다. 〈초공본풀이〉에 등장하는 아기씨는 이러한 공간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평생 동안 끊임없이 갇힘을 당하게 된다. 아기씨는 신이 되어서도 금법당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초공본풀이〉에서 아기씨는 일생을 통하여서도 바뀔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드러내고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초공본풀이〉의 채록본 간의 비교, 서사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주인공,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의미 구조, 작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초공본풀이〉 6편의 채록본 간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이는 〈초공본풀이〉 각 편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용을 명확하게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동시에 서사구조를 밝혀냄으로써 본풀이의 대상인 ‘초공’에 해당하는 인물을 밝혔다. 본풀이에서 주인공은 반드시 신직 획득의 과정이 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아기씨와 삼형제를 비교하여 이야기 전개에서 신직 획득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공’에 해당하는 인물을 밝히는 데는 제주도 큰굿 내에서의 제차에 따르면 창세신 다음으로 높은 지위의 신이라는 점을 참고하였다. 〈초공본풀이〉에서 신직을 획득하는 인물은 삼형제와 아기씨로 볼 수 있다. 창세신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은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다. 아기씨와 삼형제 사이에는 신적인 위계가 존재하며 삼형제는 천상의 신이라는 점에서 삼형제가 초공이라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었다.

제Ⅲ장에서는 반복되어 나타나는 텍스트 구조를 살펴서 그 바탕을 이루는 의미 구조를 살펴보았다. 〈초공본풀이〉는 만남—이별 구조, 시련—극복 구조를 통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조는 작품의 의미와 서사 전개의 조직이라는 두 가지 기능에 충실히 기여하고 있다. 3대에 걸친 이야기는 제1대와 제2대, 제3대의 이야기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3대에서는 제1대와 제2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제3대에서 작품이 결말을 맺는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제3대에서 제1대, 제2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형제가 〈초공본풀이〉의 주인

공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화의 주인공은 기존의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데, 이는 시련을 통한 가치 체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화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삼형제는 시련을 통해서 가치 체계의 전환을 보여주며 신직을 획득한다.

제IV장에서는 〈초공본풀이〉의 생산에 영향을 준 사회의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에 밝히기 위하여 등장인물의 역할과 행동에 따라 생물·무생물 차원과 가족·혈연적 차원, 사회·정치적 차원으로 의미 층위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의미 층위에서 일정한 기호학적 정방형에 인물들을 분포시켜 의미를 형성하는 데 작용하는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생물·무생물 차원에 있어서의 인물 분류가 무속이 본질적으로 신과 인간의 세계에 대한 경계가 없다는 특성을 무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는 작품에 녹아 있는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밝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며, 수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아기씨만은 두 세계 간의 이동에서 자유롭지 않고 반드시 시련의 과정을 거쳐 공간을 이동하게 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였기에 우리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생물·무생물 차원의 분석을 하게 되었다. 가족·혈연적 층위의 인물 분포는 〈초공본풀이〉에서 중심이 되는 등장인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인물의 행동과 역할 부여, 그리고 이야기 전개에까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아기씨는 〈초공본풀이〉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의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를 일생을 통하여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사회의 문화 체계와 가치 체계가 아기씨를 통해 더 잘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남성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여성에게 지배자로서 남성 위주의 사회가 횡포를 가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마치면서 〈초공본풀이〉만을 그 연구 대상만으로 하여 제주도의 다른 무가와 연계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초공본풀이〉의 독립된 연구가 자칫 무가의 관련성을 이해하지 못한 연구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초공본풀이〉 연구 중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말한다면 제

주도 큰곳의 제차에서 〈초공본풀이〉 다음 제차인 〈이공본풀이〉와 〈삼공본풀이〉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치수 외, 현대기호학의 발전,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98.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 집문당, 1980.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서울 : 집문당, 1985.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 본풀이 자료집, 제주 :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서울 : 집문당, 2001.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서울 : 민음사, 1999.
아까마쓰 지조오·아끼바 다카시,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서울 : 동문선, 1991.
윌터 J. 옹, 이기우 외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 문예출판사, 1995.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 : 역락, 2001.
정재철 편저, 문화 연구 이론, 서울 : 한나래, 1998.
진성기, 남국의 무가, 서울 : 형설출판사, 1987.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진, 서울 : 민속원, 1991.
최길성, 새로 쓴 한국무속,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9.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서울 : 집문당, 1991.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서울 : 집문당, 1986.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서울 : 신구문화사, 1974.
홍태한,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서울 : 민속원, 2000.
홍태한, 한국서사무가연구, 서울 : 민속원, 2002.

〈논저〉

- 강금숙, “초공본풀이와 불의 딸의 서사구조 연구,” 이화어문논집 12집,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논집, 1992.
구영숙, “서사무가의 구조 분석,”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김인옥,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한국교원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준기,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경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김준기, “신모신화연구,”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김태곤, “무속과 불교의 습합,” 한국민속학 19집, 서울 : 한국민속학회, 1986.
- 김현선, “한국 민족신화의 재점검 : 무속신화의 연구의 방향과 과제,” 인문과학 28집,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 서경희, “무속신화 속의 여성 — 제석본풀이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6집, 서울 : 온지학회, 2000.
- 설성경, “초공본풀이의 서사구조 연구,” 현용준박사화갑기념 제주도 언어민속논총, 제주 : 제주문화, 1992.
- 신경숙, “동명왕편과 제석본풀이의 대비 연구,”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신월균, “초공본풀이의 구조 고찰,” 국어국문학 100집, 서울 : 국어국문학회, 1988.
- 오세정, “무속신화의 희생양과 희생제의 —바리데기와 제석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7집, 서울 :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 이수자, “삼불제석의 신적 성격과 형성 배경 —무조신화 초공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집, 서울 : 한국역사민속학회, 1994.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장주근, “제주도 본풀이 전승의 현장 연구,” 제주도연구 11집, 제주 : 제주학회, 1994.
- 진성기, “제주도의 전통문화 —주로 무속신화 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9집, 서울 : 한국민속학회, 1986.
- 최시한, “초공본풀이의 구조 분석,” 배달말 11집, 서울 : 배달말학회, 1986.

ABSTRACT

A study of 「Chogongbonpuri」

Kim, Woo-ju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Woon-sik, Doctor of Literature

This study is aimed to research 「Chogongbonpuri」, a Korean shamanic epic, which is scattered broadly through island Je-ju. 「Chogongbonpuri」 is a story of three brothers and their mother. Their mother was born in the family of high noble as only begotten daughter. When she was 15-years-old, She tied abnormal relation with monk. She got a baby, which she didn't want. She was driven out from her family, although it was not her to blame. She suffered many trials for that pregnancy which she didn't want. She falled off from her husband and gave birth to three boys. Her children had excellent ability. But they could not have great success for their status of being monk child. They become the shaman to rescue their mother who had been kidnapped. 「Chogongbonpuri」 had been regarded as a type of the 「Danggeumaegi」. As the result, the researches of 「Chogongbonpuri」 have not been done to satisfactory extend. 「Chogongbonpuri」 shows many differences with 「Danggeumaegi」. Consequently we need research to regard 「Chogongbonpuri」 as one piece of independent wor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 (1) Who is the hero in the story?
- (2) What is the value system which is reflected at the story?
- (3) What is the culture system which is reflected at the story?

To achieve this purpose,

- (1) I have compared 6 versions of 「Chogongbonpuri」 each one to the others.
- (2) I have looked into the structure which contributes to the narrative development.
- (3) and analyzed characters who appear 「Chogongbonpuri」 in various meaning levels.

As consequence, we got the results like these. I had analyzed 6 version of 「Chogongbonpuri」 and got the structure of the narrative development. And I have found that the main characters of this story are three brothers and their mother. The mother is a passive narrow-minded and timid woman, and three sons are active ones with brave hearts. The brothers are playing the role of hero in the story. As the next, I have analyzed their behaviors and roles in the perspective of complex meaning hierarchies. It is in shamanic epic tends to reflect the value system and culture system of society. This is the reason the mother shows up so many times in the story. We can see that the culture and value systems of the society are reflected in these socially powerless people. I tried to find out the nature of the literature genre. I've found the prototypical of 'Chogong' indicates the three brother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4.